

석사학위논문

타인을 향하는 미술

- 당사자성을 넘어서 -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현 대 미 술 전 공

김 지 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규

타인을 향하는 미술

- 당사자성을 넘어서 -

Art Directed at Others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현대미술전공

김지윤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규

타인을 향하는 미술

- 당사자성을 넘어서 -

Art Directed at Others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현 대 미 술 전 공

김 지 윤

김지윤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정 현 이 (인)

심 사 위 원 김 효 정 (인)

심 사 위 원 김 동 규 (인)

국 문 초 록

타인을 향하는 미술 - 당사자성을 넘어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현 대 미 술 전 공
김 지 윤

본 논문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처해 있는 타인을 이해하는데 미술이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목표로 삼고 시작한 논문이다. 그 배경에는 본인의 경험과 기질에 기반하여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술가로서 창작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미술이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두는 큰 이유는 타고난 기질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설득력이 강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의 주장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을 때의 대비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조건과 이유를 살펴본다. 롤스의 경우 성악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그가 공평한 정의관을 가진 사회를 주장하는 방법들은 타고난 선과 악을 떠나 개인주의의 시점에서 개인에게 유리하기에 보편성을 떨 수 있다.

롤스의 이론의 경우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사회를 공평하게 만드는 절차'를 제시한 것처럼 개인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타인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타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하지만, 이는 꼭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꼭 사고나 참사가 아니라도 어떤 우연적인 일이 계기가 되어 누구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일이며, 롤스가 '공정한 정의관'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이유도 사실은 현실이 공평하지 않기에 운을 타고나지 못한 일들을 위한 대비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를 포함하여 언급되는 배영환, 노원희, JR은 각자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데, 이들 모두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미술가로서의 실천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다양한 사회 문제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작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일들에 관련된 작품만을 살펴보며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창작 과정에서 미술이 가진 사회성과 특정한 형식으로 제한받지 않는 다양한 활용도를 이용하여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인식의 변화와 관심을 목표로 한다. 그에 대한 대상이 당사자성이 없는 타인인 이유와 해당 대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며, 당사자성을 극복하고 공동체적인 노력을 통해 타인을 지지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주요어】 당사자성, 사회적 약자, 정의론, 사회참여미술, 연대.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방향	3
II. 예비적 서술	4
2.1 정의론	4
2.2 당사자성의 극복	8
III. 선행 작품 연구	13
3.1 배영환	14
3.2 노원희	19
3.3 JR	25
IV. 창작 작업	30
4.1 제작 동기	30
4.2 Thomas	33
4.3 Désolé	36
4.4 Sortie	38
V. 결 론	42
참 고 문 헌	44
ABSTRACT	46

그림 목 차

[그림 1] 배영환, 〈갓길 프로젝트〉, 혼합매체, 2006/2007	17
[그림 2] 배영환, 〈도서관 프로젝트-내일〉, 혼합매체, 2009	17
[그림 3] 배영환, 〈수화-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도자타일, 2008	18
[그림 4] 배영환, 〈점자-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 도자타일, 2009	18
[그림 5] 노원희, 〈유죄 23년 상상체험관-일어서는 거짓말〉, 130x162cm, 캔버스의 아크릴, 2016	23
[그림 6] 노원희, 〈청와대 길목1〉, 72.8x91cm, 캔버스에 아크릴, 2014	23
[그림 7] 노원희, 〈큰 회사〉, 80x100cm, 캔버스에 아크릴, 천 콜라주, 2023	24
[그림 8] 노원희, 〈기념비 자리2〉, 130x162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24
[그림 9] JR, 〈Women Are Heroes〉, Favela Morro da Providencia, Stairs, Rio de Janeiro, 2008	27
[그림 10] JR, 〈Woman, Life, Freedom〉, Four Freedoms Park, Roosevelt Island, New York City, 2022	29
[그림 11] JR, 〈Women Are Heroes〉, Favela Morro da Providencia, Rio de Janeiro, 2008	29
[그림 12] 김지윤, 〈Thomas〉, 수성 스프레이, 2017	34
[그림 13] 김지윤, 〈Désolé〉 중 부분	37
[그림 14] 김지윤, 〈Sortie-hôpital〉 중 부분	41
[그림 15] 김지윤, 〈Centre pour personnes âgées〉 중 부분	41

I. 서론

1.1 연구 배경

현대 사회에서 커뮤니티에는 노인, 아동,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대상을 향한 온갖 혐오 표현¹⁾이 난무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사람들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며, 타인을 향해 무책임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낸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악의를 갖고 그 정도의 부정적인 말을 퍼붓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내뱉을 용기가 없거나, 말을 아낄 정도의 지혜는 있거나 그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알게 되거나 오해를 풀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공감을 위한 기반이 되며,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사실이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뜻한다. 오래도록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생존을 위해 낯선 존재에 대하여 위험성을 염두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타인과 집단에 대하여 혐오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을 미지의 영역으로 치부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인물, 집단과 그들에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을 가져볼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선입견을 품게 되었으므로 기회가 닿는다면 사고와 관심 영역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연구자는 사회적인 특성을 가진 미술이 관람자에게 타인을 향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구자가 미술가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작업을 해야겠다는 방향성과 제작 동기로 작동한다. 연구자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마음이 동하고 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을 작업으로써 제작하는 것이 작품

1) 각각 노인, 여성, 게이를 일컫는 톨딱, 피싸개, 풍꼬충 등이 있다.

의 진정성을 띠기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특히
꼭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성²⁾을 뛰어넘는 작품세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나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감정을 뜻한다. 당사자성은 해당하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다.

1.2 연구 방향

작품 창작을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진행한 작품의 제작 동기와 내용을 분석하여 이후 작품 창작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포괄적 주제가 되는 당사자성이 없는 채로 타인에 대해 작업을 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작품에 관련된 사상적 태도와 작업으로 연구하게 되는 당사자, 사건에 대해 명확한 인지를 목표로 진행한다.

이론 연구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꼭 개인의 타고난 기질만이 이유가 되지는 않음을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그가 말하는 최소 수혜자를 우선시하는 정의관에 관해 서술하며 연구자의 논지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자 한다. 이어 왜 당사자가 아닌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연구자의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온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이 사회를 현상하고 주장을 펼치는지 살펴본다.

본문의 내용은 문헌과 기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작성하고, 작가들의 인터뷰와 기사, 작가 노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Ⅱ. 예비적 서술

2.1 정의론

연구자는 작업 주제에 있어 사회적 약자 특히, 본인에게 당사자성이 없는 타인을 이해하는 일에 집중한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개인만의 능력으로는 절대 삶을 지속할 수 없으며 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권리를 누렸다면 동시에 의무를 지어야 한다. 연구자는 사회 안에서 약자를 배제하고 소수를 희생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 제도를 위한 정의관을 가질 필요를 말하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사상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³⁾”

롤스의 대표 저서 『정의론』은 위의 문단으로 시작한다. 롤스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는 부당하며, 최소 수혜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체제가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정의론에서 언급되는 최소 수혜자란 부모의 덕을 보지 못하거나, 재능이 있어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타고난 운이 적은 사람을 말한다. 연구자는 이를 사회적 약자와 같은 뜻이라고 전제한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고 있는 이유는 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본인의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득과 그에 맞는 의무를 분배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을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롤스는 이러한 기본 사회 구조에

3) 존 롤스, (2003),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p.36

관한 정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정의관이 있어야 사회에서 기본 구조에 필요한 덕목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그간에 대립이 있을 때, 각각의 비중을 조정하기에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롤스는 사회의 기본 조건에 관한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순수한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을 설정한다. 원초적 입장은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나 존 로크(John Locke) 등 인권의 형평성을 다루기 위한 사회 계약 존재 이전의 상황인 ‘자연 상태’와 같은 최초의 원상(Status Quo)이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최초의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정하는 절차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한 결과로 얻는 정의의 원칙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가정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는 원초적 입장에 놓인 당사자들이 사회에 있어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타고난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에 이어 자기 심리적인 특징, 그들의 의견을 대립시키게 될 어떠한 우연한 일까지도 모른다는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사람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것도 모른다면 무지의 베일이 벗겨졌을 때 자신이 부자거나 운이 타고났을 거라 확신하며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없애고 정의관을 세우는 도박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가 될 가정을 대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정의관을 세울 것이고, 이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기에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하며, 결과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가정은 원초적 입장에서도 그 당사자들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더 많은 몫을 원할 것이고 대안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한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굳이 상호 간에 이익을 주거나 손상을 끼치려 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들은 자신의 목적 체계로 판단해서 가능한 한 많은 이득을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쓴다.⁵⁾ 이렇게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

4) 상계서, p.196.

5) 상계서, p.202.

면 이타적이지 않겠지만 이기적이지도 않은 결핍값을 낼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리라고 생각되는 정의의 두 원칙은 아래와 같다.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차등의 원칙)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⁶⁾

이 원칙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 ·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제1원칙이 말하는 바는 기본적인 자유를 규정하는 종류의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나 사상 등에 있어 광범위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2원칙은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에 관한 권한을 갖는 직책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차등의 원칙은 보상이 보장되는 원칙은 아니며 모두 능력을 갖추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 체제가 능력주의적 사회로 나아가는 게 옳다는 뜻은 아니다. 만일 어떤 직위가 공정한 기반 위에서 모든 이에게 개방되지 않는다면 기회에서 제외된 자들이 비록 그 직위를 갖게 된 자들의 더 큰 노력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정의롭게 대우 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불평이 정당한 이유는 부나 특전과 같이 어떤 직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보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유능하게 수행하는 데서 오는 인간의 주요한 가치 중 하나인 자아실현의 경험을 저지당했다는 데에 있다.⁷⁾

정의의 두 원칙은 평등주의적 정의관을 표현한다. 롤스는 진정한 기회균등

6) 상계서, p.105.

7) 상계서, p.134.

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마땅히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더 큰 천부적 능력이나 공적을 사회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 간의 이러한 차이점들을 무시하거나 없애야 할 이유는 되지 않지만, 기본 구조는 이러한 우연성이 최소 수혜자의 선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편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 체제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변적인 질서가 아니며 인간 행위의 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롤스는 합리적인 인간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은 이타적이지도 이기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는 그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됐을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유리한 일이며, 최소 수혜자의 필수적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정의관을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태도가 꼭 순수하지 않아도 결과론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내포한다.

2.3 당사자성의 극복

롤스가 무지의 베일이란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듯 현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해야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지의 베일을 적용할 수 없는 현재에서 자신의 권력, 재력, 건강 등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히 유지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우리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의 입장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 서양에서 인종 차별을 받는 한국인은 국내에서 동남아 계열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기도 하며, 서비스직 종사자는 퇴근 후 다른 영업장에 방문하여 무례를 범할 수도 있고, 직장 상사에게 갈굼을 받는 직원은 집안에서 권위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어리다고 하대 받을 수 있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 특정한 위치에서 보유한 당사자의 특성 즉, 당사자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강하게 유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누구나 정의론에서 말하는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현실에는 다양한 관점에 의해 위치한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당사자성의 극복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로 앞서 말했듯 현재 보유한 지위는 시공간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자신이 배척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타자’라는 공식의 지속이 불가능함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비장애인에게 밀접한 장애와 관련된 이슈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대중교통 점거 시위를 예로 들 수 있다. 2021년부터 전장연에서 출퇴근길에 지하철의 역마다 타고 내려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시위는 오이도역(2001년), 발산역(2002년)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일 등 여러 차례의 사고로부터 출발했다. 2001년 당시 대합실부터 지하철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체계(1역사 1동선)가 확보된 역은 13.74%에 불과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 지하철 기준 92.2%에만 이른다.⁸⁾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한다고 하였고,

8) 서울 지하철 1~8호선 1역 1동선 확보율, 서울교통공사. 2021.

2022년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1~8호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한다고 말했음에도 이미 두 번의 약속이 파기된 셈이다. 단순히 승강기, 리프트의 고장으로 인한 참사가 아니어도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 역무원 부재, 저상 버스 비율 등 이동권에 한정 지어도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 다른 교통약자는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일부 비장애인의 비판이 있지만 흔히 자신과 무슨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장애는 국내 발생원인 중 후천적 질환이 43.6%, 후천적 사고는 36.4%로 후천적 요인이 80.0%를 차지한다. 또한 그 외 항목으로는 원인 불명 10.7%, 기타 1.4%로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는 7.9% 밖에 되지 않는다.⁹⁾ 장애의 범위를 보면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두 엄지손가락의 관절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으로 가는 사람, 시각장애인의 과반수 비율이 앞이 보이기는 하는 저시력자라는 사실 등 장애인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많은 사람이 속하고 있어 그 수가 적지 않다. 또한 장애판정을 내리기 애매한 범위에서 장애 등급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 노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배척하는 일은 근시안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노력에 의한 개인의 성취와 그에 따르는 보상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학 입시 현황을 보면 수험생 개인의 노력으로만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28.8%가 서울지역 학생이고, 그 중 1/3을 넘는 전체의 10.4%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으로¹⁰⁾ 부모의 경제적 자본과 사교육 인프라를 잘 타고난 학생이 좋은 성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능력주의가 발휘되기 좋은 이러한 시험 체제는 입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노동 현장에서도 문제를 초래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9) 2022년 장애인 통계, 고용개발원, 2022.

10)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2.

외부 일정으로 당시 노동자의 86%가 비정규직이던 인천국제공항을 택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발표했을 때 많은 정규직이 반발했다. 같은 해 11월 23일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 공청회’에서는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 무임승차 웬 말이나 공정사회 공개채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¹¹⁾ 이들은 정식적인 시험을 통과하였기에 정당한 노동 조건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오랫동안 근무하고 업무 능력을 갖췄어도 단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자격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역설이 생긴다. 입사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이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연차를 채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되는 별도의 시험 제도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도 않고 채용 시점의 입사 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

시험은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민간 위탁 기업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다.¹²⁾ 상담원들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보와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오랜 경험과 숙련도를 가졌지만 ‘시험’을 보지 않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받는다. 그들이 그곳에서 일을 처리해 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업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¹³⁾

능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는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⁴⁾ 학교라는 체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만 해도 과목별로 분야가 나뉘지고, 영양사 · 조리사 · 행정을 처리하는 직원 · 환경미화원 등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 현장 노동자도 필요하다. 학생을 가르친다는 목적하에 많은 이가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권리와 의무에 있어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셋째로 같은 집단 내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치기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소수자 집단 내에서 분열은 세력을 더 세분화시킬 뿐이다. 동일한

11) 윤자은, (2017), 「[갈 길 먼 인천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청회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표출」, 매일노동뉴스.

12) 박정연, (2023),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 프레시안

13) 김혜진 외 9인, (2020), 『능력주의와 불평등』, 교육공동체벗, p.112.

14) 상계서, p.116.

사유는 아니지만 같은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를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이 점이 투쟁에도 유리하다.

1984~1985년에 있었던 영국 광부 파업(UK miners' strike)은 석탄 산업 구조 조정에 반발하여 발발했다. 원자력 발전과 석유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에 반비례해 석탄의 소비는 줄어들었고, 기계화로 인해 효율성은 올라 과잉 생산으로 노동자가 설 자리는 좁아졌다. 1981년부터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탄광을 폐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1984년 국영 석탄 공사(NCB : National Coal Board)가 스코틀랜드의 탄광을 폐쇄한 사건으로 전국광산노동조합(NUM : National Union of Mineworkers)의 두 지역 위원회가 파업으로 대응하자 다른 지역까지 파업이 촉진되어 1984년 3월에 140개의 탄광이 휴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NUM의 대표 아서 스카길(Arthur Scargill) 정식으로 전국 노조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파업을 진행한 것이었다. 이에 독립성을 지키던 노팅엄셔 전국광부노조는 이러한 파업이 민주적이지 않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이후 진행된 지역 지도자들 간의 투표에서 파업에 반대하는 표가 123표 중 절반에 가까운 54표가 나와 진행을 위해 당시 헌법에서 요구했던 찬성 득표율이 2/3의 미치지 못했다. 파업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혔고, 전국 투표 결과의 구속력을 두고 법적 분쟁도 벌어지기도 했다.¹⁵⁾

내부 분열은 폭력적인 사태로도 일어났는데 택시 운전사 데이비드 윌키(David Wilkie)는 1984년 11월 30일 사우스 웨일스의 머서베일탄광(Merthyr Vale Colliery)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광부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두 명의 파업 광부가 도로 교량에서 그의 차에 콘크리트 기둥을 떨어트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해당 광부들은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시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공격성이 감소했다고는 보고하나 정치인 헐박 외에도 다른 광부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례들이 존재했다.¹⁶⁾ 결과적으로 파업은 NUM이 정부와의 대화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지쳐가면서 내부 갈등과 정부의 강인한 대응

15) 노조 파업과 철의 여인, 네이버 재인용.

16) Peter Wilsher, (1985), 『Strike : Thatcher, Scargill, and the miners』, Coronet Books, p.214

및 광산 노동자들의 힘을 감소시킨 결과로 종료되었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 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사건이 있다. 파업이 길어지며 NUM은 기금이 부족했는데, 이 당시 가장 많은 지원금을 기부한 단체가 파업 기간 내에 성소수자들이 결성한 LGSM(Lesbians and Gays Support the Miners)이다. 이들은 '레즈비언과 게이가 광부를 지지합니다'라고 인쇄된 미니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물건을 판매하거나 공연을 통하여 당시 금액으로 20,000파운드 이상을 모금해 전달했다. 광부들과 성소수자들은 탄광이 있던 사우스 웨일스의 복지관에서 춤을 추는 등 함께 지내는 동안 유대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파업이 끝나도 지속되었다. 이후 광부들은 1985년 런던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인 '프라이드'를 직접 참여하는 등 지지와 지원을 하며 국가집행위원회(The National Executive Committee)가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던 게이와 레즈비언의 평등권을 지지하는 동의안을 NUM의 지지를 더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¹⁷⁾

꼭 서로를 향한 이해가 전제로 깔려야만 연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대가 계기가 되어 서로 알아갈 수도 있다.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도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면 충분하다.

17) Colin Clews, (2012), 「1985. Lesbians and Gays Support the Miners. Part Two.」, Gay in the 80s: A Pivotal Era in LGBT History?

Ⅲ. 선행 사례 연구

앞으로 언급할 작가들은 서로 다른 매체와 소재로 작업을 진행하지만, 작품 속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와 작가 자신이 동일한 당사자성을 갖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연구자의 작품 제작 동기와 내용에 있어 유사함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 연구자의 태도와 작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행 사례로서 짚고 넘어간다.

한국 조형 예술 작가 배영환의 작품에 등장하거나 참여한 장애인, 노숙인, 문화 소외 계층은 대부분 처음부터 그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당사자성의 중요성이 부재하고,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우연성에 집중하며 공공성이 강한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본다. 한국 회화 작가 노원희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자들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산업재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작품을 전개했다. 프랑스 설치 작가 JR은 여러 사회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작업을 하지만 작품 속 대상과 작가가 동일한 당사자성을 띠지 않는다는 연구 주제에 맞춰 여성을 다룬 프로젝트만을 선택하였다. JR의 작품을 통해 연대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결과와 그에 이어지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각각의 작가는 당사자성 극복의 필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의 작업을 각자 다루고 있으며, 롤스가 말한 최소 수혜자를 배려해야 하는 정의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세 작가에게서 등장하는 인물과 집단에 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3.1 배영환

배영환은 1969년에 태어나 1990년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1997년 ‘유행가’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배영환은 노숙자,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관심을 두고 미술을 통해 발언하였다. 그는 개인 작업뿐만 아니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실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골의 갓길을 걸어 다니는 어린이들이 겪는 위험을 나타낸 <갓길 프로젝트(2006/2007)>(그림 1)는 풍선을 매단 헬멧을 쓰고 시골 갓길을 걷는 아이들을 촬영한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법규 마련 같은 실질적인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미술의 역할로 삼기도 한다.

배영환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수자 프로젝트:노숙자 수첩, 거리에서 2001>는 작가가 노숙인과 함께 생활하며 노숙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수첩으로 노숙인 관련 시설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배포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노숙인 지원시설, 무료 급식소, 숙소, 화장실, 병원 등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뿐만이 아니라 ‘설사 날 때’, ‘벌이나 벌레에 쏘였을 때’ 등 같은 응급처치법 안내, ‘세계인권선언문’과 헌법 조항뿐만 아니라 배영환의 지난 작업과 관련이 있는 나훈아의 ‘고향역’, 김광석의 ‘거리에서’ 같은 ‘유행가’의 악보까지도 실려 있다. 이는 노숙인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미술이라는 형식으로 노숙인을 이해하고 그들이 등장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고찰의 유도를 의도하였다.

배영환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있는 장애인과 협업한 <수화-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그림 3)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에 위치한 서울농학교 담장에 5개의 패널로 구성 되어 있다. 지문자¹⁸⁾로 된 한글 자음, 모음, 숫자, 알파벳과 178명의 학생과 7명의 선생님의 작품으로 300개의 타일이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작품은 “내 일상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서 배영환이 3주간 수업을 진행한 결과물을 도자타일에 전

18) 손가락으로 어떤 모양을 지어, 이를 부호(符號)로 한 문자.

사하였다.

위의 작업과 함께 진행된 <점자-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그림 4)은 서울농학교와 나란히 위치한 서울맹학교 담장에 붙어 있다. 21x21cm 도자로 된 타일 하나에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180명의 재학생의 학년과 이름을 점자와 글자로 표기하고 학생들의 손 모양을 따 양각으로 제작되었다.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점자와 글자로 함께 만들어 나란히 병치하여 총 90개의 타일이 3,180x1,270cm 크기의 패널을 이루고 4개의 패널이 벽에 자리한다.

서울농학교와 서울맹학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는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나누는 담장에 서로의 문자를 함께 적어 소통의 장으로 변환한다. 특히 농학교에서 진행한 <점자-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은 일시적이라는 시간성을 띠는 음성언어의 한계를 넘어 함께 하지 않은 공간에서 문자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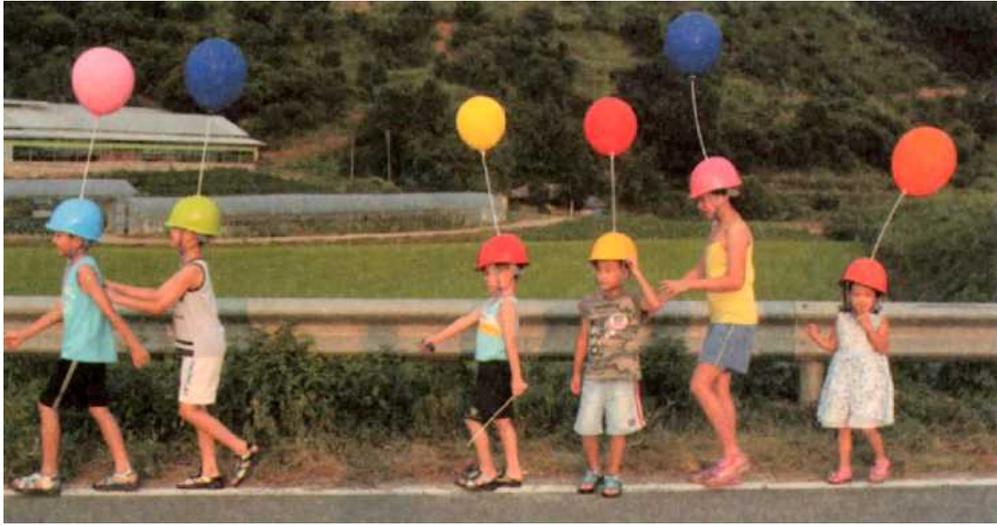
제작 이후 지역 시민에 의해 운영이 유지되고 있는 <來日(Tomorrow)>은 문화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과 산간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특히 아이와 노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도서관을 만든 프로젝트이다. 2009년 아트선재센터에서 <도서관 프로젝트 “來日(Tomorrow)”>전의 관람료로 컨테이너 도서관 제작 및 도서 구매 비용을 마련하고, 책을 기증한 관람객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미술관과 경기문화재단이 지역 커뮤니티 공간 생성 목적으로 배영환과 협업하여 경기도미술관 1호점을 기점으로 수원, 광주, 시흥, 양평, 남양주에 추가로 이동식 도서관을 설치했다. 이 도서관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요리하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봉사가 이루어지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배영환의 작품 속 대상이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노숙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문화 소외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후자의 두 경우는 스스로 초래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기에 그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운이 나빴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19) 박동수, (2012), 「점자, 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 issuu.

도 없다. 배영환은 그들을 하나의 인간 자체로만 보고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한다. 그것은 실생활의 유용한 정보일 수도, 소통의 장일수도, 많지 않더라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 그의 작업은 미술관에 걸리는 예술 작품처럼 어딘가 특출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대미술이라는 범위 안에서도 공간과 목적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하고, 직접 현장에서 대상들과 지내며 사고 실험으로 필요한 것을 유추하는 것이 아닌 사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변화와 소통을 일으킨다.

미술관 바닥에는 기준선이 그어져 있고 작품에 손을 대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쓰여있다. 작품 보호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지만, 이는 인간의 감각 중 주로 시각, 청각으로 제한되며 미술품 감상은 한 범위 더 나아가 특정 집단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언급된 배영환의 작품은 만지는 것을 넘어서 단순히 감상이라는 목적 외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술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다양한 원색의 귀여운 외형을 가진 풍선이 달린 헬멧은 아이들이 직접 써야 작품이 완성되고, 노숙자 수첩 안에는 작가가 직접 그린 지압법 등을 통해 안마할 수 있으며, 점자를 만지기 위해서는 작품에 손을 대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미술품이 제테크를 위한 컬렉션으로 소비되기도 하며, 소셜 미디어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진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배영환의 작업은 소비 자본주의를 벗어나 순수한 미술의 영역에 머물며 온전한 목적성을 띤다.



[그림 1] 배영환, <갯길 프로젝트>, 2006/2007



[그림 2] 배영환, <도서관 프로젝트-내일>, 혼합매체, 2009



[그림 3] 배영환, <수화-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도자타일, 2008



[그림 4] 배영환, <점자-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 도자타일, 2009

3.2 노원희

노원희는 1960년대 후반 대학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한편 현실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1973년 대학원 졸업 후 대구로 귀향하여 대학에서 강의하며 야학 운동권 학생들도 만나 참여 문학론이나 사회 전반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현실 인식을 구체화했다.²⁰⁾ 1977년 문헌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열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주로 ‘예술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이전부터도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을 실체화하는 비판적 리얼리즘을 지향한다.²¹⁾

노원희의 작품세계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관한 작업 중 먼저 다룰 부분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과 집단의 외상을 다룬 작품들이 있다. 참사나 부조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국가의 권력이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나 보상으로 작용하지 않고, 도리어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거나 부당함이 가중되어 가해자에게 이롭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유죄 23년 상상체험관-일어서는 거짓말>(그림 5)은 1991년 노태우 정권에 대해 퇴진 시위가 일던 중 민주화 운동진영인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철이 분신자살했고, 그의 친구인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써 3년간 옥살이한 사건에 관한 그림이다.

노원희는 2014년 2월, 어느 신문 1면에 1991년 기소되어 법정에서 27세의 강기훈과 전날 무죄판결을 접한 50세의 강기훈의 얼굴 사진이 나란히 실린 것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됐다.²²⁾ 당시 검찰은 강기훈뿐만 아니라 피내사자인 여러 인물에게 강압적이고 왜곡 수사를 벌이며, 언론을 통한 시민의 관심을 차단하고, 법원은 이러한 기소를 인정하며 판결했다. 2007년 진실·

20) 이성희, (2017), 「노원희 개인전 - 담담한 기록 : 인간사, 세상살이, 그리고 사건」, 아트스페이스플

21) 노원희, (2013), 「노원희」, 헝사곤, p.10.

22) 노원희 작가노트 발췌. 2014년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강기훈의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한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2015년에 이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품 제목의 23년과 실제 재심 판결이 확정된 시간의 차이는 여기서 비롯된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김기철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내린 당시의 감정은 김형영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이 혼자 한 것이었고, 공동감정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²³⁾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권고하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에 강기훈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기간에 당시 재판부였던 운영철 재판관은 추후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내고, 수사를 지휘한 강신욱 부장검사는 대법관을 지내며, 남기춘 검사는 울산지검장-서울서부지검장 등을 거치는 등 다수의 관련 인물이 강기훈과 대조되는 행보를 걸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²⁴⁾

또한 노원희는 <말의 시작>, <청와대 길목1>(그림 6), <집으로 가는 길 2015.4.17.> 등 여러 작품에서 2014년 안산시 단원고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승객 476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사망한 참사를 다뤘다. 이 사고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완화하면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 원 절감될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의 판단하에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여객선 운용 시한이 20년에서 30년까지 늘어나 청해진해운이 폐선에 가까웠던 18년 된 세월호를 일본에서 사들인 것부터 시작되었다. 추후 세월호를 증축에 대해 선박 설비 안전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지만, 해당 사고가 선박 균형을 잡는 장치 불량이나 전기 계통 기기의 잦은 고장에서 비롯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당시 세월호의 적재량의 2배 가량 되는 화물이 실리고, 선원들이 제복을 벗은 채 먼저 탈출하는 등 복합적으로 무책임한 사유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²⁵⁾ 서울로 이사한 노원희는 시내로 드나드는 길에 청와대가 있어 매번 시위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신문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광경을 눈으로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의 유가족이 시위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그리며 절망과 슬픔의 현실을 드러내고, 집회에 있는 경찰들의 모습을 통해 공권력이나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는 그림을 그려냈다.

23) 박래군, (2008),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4) 이숙이, (2015), 「강기훈과 그들의 24년」, 시사IN.

25) 우경희 외 2인, (2014), 「총체적 '인재'의 결정판 세월호...."곳곳에 원인 있었다"」, 머니투데이.

노원희는 최근 자본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와 구조적 문제로 부터 비롯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산업재해와 피해자의 고통에 관한 작업을 진행했다. <큰 회사>(그림 7)는 노원희가 산업재해에 관심을 두 게 된 2007년 삼성반도체 황유미 사건에 관한 그림이다. 황유미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취직하진 2년이 채 안 되어 ‘급성골수백혈병’을 진단받았고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 후 사망하였다.²⁶⁾ 그림 속에는 골수이식 수술 후 휴직 중이던 황유미의 집에 삼성반도체 과장과 함께 찾아왔던 관리자가 “아버님이 이 큰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겨 보세요.”라고 한 말이 쓰여 있다.

<기념비자리 2>(그림 8)는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그린 작품이다. 발전소는 노동자들의 ‘2인 1조’ 준수 요구를 묵살하고 있었고, 비상시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킬 수 있는 ‘폴 코드’라는 장치가 있지만 김용균은 새벽에 혼자서 근무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²⁷⁾ 노원희는 이 사건에서 커다란 비극성을 느끼고 산업재해에 대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림 속에서는 사고 열흘 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캠페인을 위한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힌 김용균의 모습이 비어버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노원희는 한국 산업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 산업재해와 더불어 단순히 노동자뿐만이 아닌 인권 자체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다.

“‘소외’라는 개념 자체가 부와 자본의 분배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 전부가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소외 계층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삶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삶의 희망’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력을 오롯이 스스로 일궈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권위적 태도를 보이게 될 수

26) 박수연 외 3인, (2021), 「그 공장 3라인에서 죽은 사람들... 13년 만에 온 편지」, Ohmynews.

27) 장기현, (2018), 「태안 화력발전소 '2인1조' 요구 묵살, 누구 책임?」, UPI뉴스.

있다. 그러한 태도는 자기중심적이기에 권위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희생시킨다. 노원희가 항상 그려온 그림 속 인물들은 결국 권력과 부를 위한 희생된 피해자다. 그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그 안에서 분명하게 실제 사건 속 인물의 얼굴, 경찰의 형태, 사건의 배경을 명확하게 그려낸다. 가해자가 당당하게 피해자를 억압하고 짓누를 수 있는 사회에서 그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럼에도 분명하게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음을 특유의 색채로 처량하고 스산하게 그린다.

또한 회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한 노원희는 효과적인 서사 전달을 위해 고민한다. 노원희는 시위 현장에서 본 피켓들이 뇌리에 하얀 네모꼴로 잔상을 남긴 것을 말풍선과 같이 그림 안에 흰색 사각형을 그려 넣는 방식을 채택했다. 사람의 얼굴이 무어라 소리치는 표정이지만 사각형은 빈칸으로 두어 보는 이로 하여금 그의 말을 상상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며, 실제로 노원희가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하는데 흐릿하게 비치는 글자는 피해자들이 발언하기가 자유롭지 못함을 나타낸다. <사복으로 갈아입히고>(2023)에는 포스트잇을 붙이듯 천 위에 피해자들의 말을 직접 옮겨 투명하고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현실에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고 이미 끝나버린 일이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무력감과 슬픔의 감정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말조차 내뱉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 말이 들어갈 자리인 사각형은 그 공허를 나타내기도, 말로 못 뱉는 말을 글로써 담아내기도,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지 못 해 썼다가 지우기도 한다.



[그림 5] 노원희, <유죄 23년 상상체험관 - 일어서는 거짓말>, 130x162cm, 캔버스의 아크릴, 2016



[그림 6] 노원희, <청와대 길목1>, 72.8x91cm, 캔버스에 아크릴, 2014



[그림 7] 노원희, <큰 회사>, 80x100cm, 캔버스에 아크릴, 천 콜라주, 2023



[그림 8] 노원희, <기념비 자리2>, 130x162cm, 캔버스에 아크릴, 2018

3.3 JR

JR은 파리 빈민가 출신으로 중절모와 검정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한 채 실명과 맨얼굴을 감추고 활동하고 있다. JR은 익명을 고집하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보다 내가 보여 주려고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작업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기 위해 어떤 기업의 후원도 받지 않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17살에 그래피티 페인팅으로 시작한 JR의 작업은 항상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주제로 진행한다. 2005년 파리 소요 사태 이후 미디어에서 이민자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Portrait of a Generation〉, 같은 직업을 가진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얼굴을 각각 교차로 붙인 후 그들이 서로의 적이 아님을 보여준 〈Face 2 Face〉, 전쟁이나 기후 변화 혹은 사회적 불안정으로 난민이 된 어린이의 이미지를 45m 방수포로 만든 〈Déplacé·e·s〉 등이 있다. JR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그들의 모습을 흑백 사진으로 인쇄해 폴로 붙이는 평화로운 형식의 설치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Wonam, Life, Freedom〉(그림 10)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의 이란 여성과 시위자들과의 연대를 보여준다. 2022년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라는 이란 여성이 히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 ‘도덕경찰(Guidance Patrol)’에 구금 중 의식을 잃은 뒤 사망한 사건에 대응하여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사진** 속 여성은 해당 시위 중 이란 당국에 의해 사망한 니카 샤카라미(Nika Shahkarami)의 얼굴 사진과 함께 250명의 참가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팔을 들어 그의 머리카락을 형상화한 것이다. 한 달 후, 뉴욕시의 루즈벨트 공원(Franklin D. Roosevelt Four Freedoms Park)에서는 3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여 휘날리는 바람을 흉내내기 위해 팔을 휘두르며 마사 아미니의 이름과 “Zan, Zendegi, Azadi”(여성, 생명, 자유)를 외쳤다. 바다 옆에 놓인 샤카라미의 초상화는 여성의 권리, 민주주의, 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은 수천 마일 떨어진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함께 내보인다.

〈Women Are Heroes〉(그림 11)는 2008년에 리베리아(Liberia)를 기점으로 시에라 리온(Sierra Leone), 2009년에 파리, 브라질, 인도, 캄보디아, 케냐, 2014년에 르 아브르(Le Havre)에서 총 8번 진행되었다. 이는 JR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 다룬 첫 프로젝트로, 그가 분쟁 지역을 여행하며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전쟁, 범죄, 강간, 정치적, 또는 종교적 광신주의의 주요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시작됐다. JR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사진을 찍고 그들의 마을, 인근 도시, 공원 등 공적이며 유의미한 장소에 사진을 인쇄하여 붙임으로써 사회에서 여성의 중추적 역할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⁸⁾ 이 과정에서 JR은 여성들을 예술적인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이 단순히 고통과 슬픔을 갖는 약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을 내비쳤다.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 남성들의 도움을 받아 사진 속 여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과정을 거치기를 목표로 한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했던 〈Women Are Heroes〉는 여성을 향한 폭력적인 태도가 여성에게만 그치지 않고 아동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향하는 것을 담아냈다. 2008년 프로비덴시아(Providência)라는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 3명이 토요일 아침 일찍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군인 11명에게 제지당한 뒤, 다른 빈민가의 마약 조직원들(Drug gang)에게 넘겨져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JR은 외부인이었지만 세 소년의 엄마와 할머니,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받아들였다. JR은 사망한 소년 한 명의 할머니의 사진을 소년들이 붙잡힌 계단에 붙였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이해받고 마을 전체로 확장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미디어는 헬리콥터에서 망원렌즈로 촬영할 뿐 관여할 수 없었고, JR 팀은 작업을 마친 뒤 떠나버려서 언론은 프로젝트에 대해 알기 위해 사진 속 여성들을 직접 만나야만 했다. 이를 통해 범죄에 희생되는 여성들이 언론에 보이는 것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모습을 내보이며, 시(市)와 협업하여 지역 환경 미화 개선하고, 문화회관을 건설하며 예술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8) <https://www.jr-art.net/project-list/woman-are-heroes>



[그림 9] JR, 〈Women Are Heroes〉, Favela Morro da Providencia, Stairs, Rio de Janeiro, 2008

JR이 프로비덴시아로 넘어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Face 2 Face〉을 설명했을 때, 지역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으며, 자신들은 ‘문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JR은 아이들 사진을 찍어 다음 날 포스터로 벽에 붙여 그들 존재가 예술에 속해 있음을 전하고자 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 속에서 JR의 작품을 보며 토론하는 사람들에게 “몇 시간 동안이나 여기에 머무는 동안, 내일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것”²⁹⁾이 예술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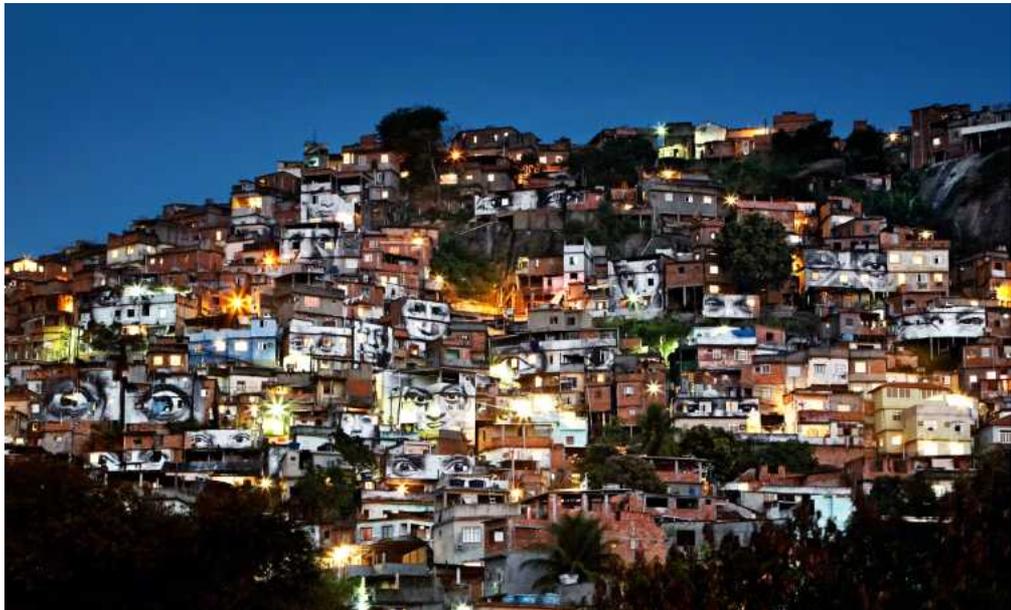
JR은 프랑스에서 브라질 빈민가에서 청소년이 살해당한 뉴스를 보자마자 브라질로 건너가 작업을 착수했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망설임 없이 행동에 옮겨 그 안에서 연대를 형성하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추구한다. 그는 TED 강연 중 “예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방법과 인식을 바꿀 수는 있다.”고 말했다. JR은 예술의 힘을 믿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문제들에 관한 관심을 추구하는 실천적 작업을 진행한다. 〈Women Are Heroes〉은 설치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얼굴로 만들었다. 주민이라면 길을 오가며 마주치거나 한두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이 여성들은 어떤 폭력에 피해자(일 수 있다). 차별과 혐오, 폭력은 내 주변이 아닌 멀리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회화 〈풀밭 위의 점심 식사〉와 〈올랭피아〉에 등장하는 여성은 그림을 넘어 관람객과 시선을 맞추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성적 대상화가 되어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야 했던 약자인 여성이 아닌 알몸인 상태에서도 온갖 시선에 개의치 않으며 고개를 들고 있다. 여성이 화가가 되기조차 어려웠던 시절 이 남성 화가는 여성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품고 발설한다. JR이 정면에서 찍은 여성들의 두 눈과 얼굴은 단순히 관람자가 작품을 보는 수동적인 시선의 대상이 아닌 약자이기에 움츠러들었을 그들이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고,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든다.

29) TED-Use art to turn the world inside out | JR



[그림 10] JR, 〈Woman, Life, Freedom〉, Four Freedoms Park, Roosevelt Island, New York City, 2022



[그림 11] JR, 〈Women Are Heroes〉, Favela Morro da Providencia, Rio de Janeiro, 2008

IV. 창작 작업

4.1 제작 동기

몇 년 전까지 연구자는 예술가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창작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았다. 소설가이자 예술평론가 수전 손택(Susan Sontag, 1933~2004) 역시 그의 저서 『타인의 고통』에서 예술이 타인의 고통을 재현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는 전쟁 사진 등 실제의 공포를 근접 촬영한 이미지를 쳐다볼 때는 충격과 더불어 수치감이 존재하며, 현실의 고통을 담은 이미지를 쳐다볼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격감시키려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의사나 군인 같은)이나 그런 고통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었던 사람밖에 없으며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을 포함한 나머지는 관음증 환자라고 주장한다.³⁰⁾

책에서 다루어지는 주된 매체인 사진뿐만이 아니더라도 예술 작품은 대상화를 통해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변형시켜 버린다. 이는 단순히 사건이나 인물을 존중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예술 작품의 소재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특히 그 작품의 목적이 무언가를 고발하고, 사람들의 행동도 변화시키려 한다면 관람자에게 충격을 주어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미화시키거나 추하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대상을 활용한다.

우선 연구자는 꼭 고발이나 변화를 위한 방법이 즉각적이고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고 느낀다. 자극적인 방법은 순간적인 효과나 감상을 끌어낼 수 있으나 수전이 뒤이어 말하듯 사람들은 적응력을 갖고 있다.³¹⁾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많은 자극을 요하다 본래의 목적을 잃은 채 자극이라는 형식만 남게 될 위험성도 있다. 극단적인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물론 없겠으나 설득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연구자는 진정성을 가진 다정함이 작지만 꾸준

30) 수전 손택, (2004),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p.68.

31) 상계서, p.126.

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수전은 결론적으로 모든 기억은 개인적이며 재현될 수도 없고, 그렇기에 우리는 당사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부분이 연구자가 창작 과정에서 고민하던 윤리적인 영역에 관련된 부분으로 과연 타인의 고통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가였다. 슬픔과 고통을 소화하는 시간과 방법은 개인마다 다른데 다수가 겪은 참사에 대해 발언할 필요성에 묻혀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면 그 역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느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수많은 어린 피해자들이 생겼을 때, 또래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어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특히 사회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라면 작품으로 다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 결과로 많은 시위와 발언, 전시와 작품이 생겨났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유가족과 생존자,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슬픔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우리 모두가 해야 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당사자성의 극복을 역설하는 이유는 그 슬픔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연대를 통해 지지하며 행동하는 노력이 모두 타인인 그들을 진정 위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 아래에 공통된 선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쉽게 무너지기도 하며, 그 후에 다시 일어나는 일은 무척 어렵기에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대신 목소리를 내는 것은 타인의 역할이 된다.

연구자는 미술가로서 여성의 권리, 노숙인, 환경 문제 등 개선을 위하여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는 사회적인 사안에 대한 창작활동을 목표로 한다. 미술 작품이 제작되어 전시되고, 서문이 써지고, 비평이 생기며, 관람자가 그것을 본 뒤에 소셜 미디어에 남기는 등 미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미술이 사람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없다. 당사자성의 유무를 떠나 내가 속한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발언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하다.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는 예술의 종국적 목적이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 근원이 인간의 자유에서 기인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재획득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관심 영역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이 세계를, 미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게 만들어야 한다. 일하고, 사랑하고, 배울 수 있는 인간이 누릴 다양한 자유와 선택에 대한 권리를 재획득해야 한다.

4.2 Thomas

<Thomas>(그림 12)는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개인의 취향을 사회적 시선에 의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작업이었다. 포털 검색창에 ‘성소수자’만 검색해도 자동완성 기능에 두 번째로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 존재한다.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되지만, 기독교 단체의 반대 시위 등 절차부터 난항을 겪는다.

‘혐오’라는 단어는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정도가 깊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으나 일상에 스며들어 만연하게 표출되어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 온갖 특성에 붙어 타인을 배척하는 데 쓰이곤 한다. 이러한 혐오는 차별과 배척을 낳고 다시 혐오를 낳는 악순환에 생긴다. 마사 너스바움(Martha C.Nussbaum, 1947~)은 저서 『혐오와 수치심』에서 혐오에 대해 설명한다. 대개 혐오는 관념적 요소에 의해 유발되는데 배설물, 콧물, 정액 같은 다른 동물적 신체 분비물로 인해 자신이 저열해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³²⁾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혐오의 대상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초점은 동물과 그것의 부산물에 맞춰져 있으며 우리 자신이 지닌 동물성에 대한 불편함과 부패하며 노폐물이 되는 취약성과 연관된다. 즉, 생태계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순수하고 이성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려는 야망이 있는 인간의 위치가 동물의 지위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혐오감이 비롯된다.

혐오의 속성들(점액성, 악취, 점창성, 부패, 불결)은 반복적으로 일정한 집단들과 결부됐으며,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유대인, 여성, 하층 계급 사람들 모두 육신의 오물로 더럽혀진 존재로 상상되었다.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동물적 삶의 연속성, 몸의 유한성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 또한 여성은 성교 시에 정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성(동물)의 몸에서 빠져나간 정액이 남성에게 혐오를 유발한다면, 남성들은 혐오 물질로 인해 여성들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성 동성애자에 혐오를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

32) 마사 C. 누스바움, (2015)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p.168.

으로 남성의 사고이고, 그 속에는 향문으로 다른 남성의 분비물이 침투될 수 있다는 상상이 스며있다. 남성에게 침투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끈적임, 분비, 죽음을 막아 주는 경계가 된다. 몸의 부산물이 신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것은 이질적이며 자신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로 구분 짓는다.³³⁾

혹자는 위의 근거가 억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약자의 위치에 놓일 때의 경험과 감정이 타인을 이해하고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와 상반되는 하나의 집단을 비논리적인 이유로 혐오한다면 사실은 다른 여러 집단과 사람을 무분별하게 혐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한다. 때로 이러한 무분별한 혐오를 악용하는 예도 존재한다. 2023년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슬람 사원 건축에 관한 기독교 시위에 관해 “이슬람 포비아를 터무니 없이 만드는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은 대구에서 추방돼야 한다.”,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되면 대구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없다. 자신의 종교가 존중을 받으려면 타인의 종교를 편협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³⁴⁾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에서 열릴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페이스북에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 행사를 반대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합니다.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합니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후략)”³⁵⁾과 같은 글을 게재해 타 집단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아마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상황에 따른 유권자 확보를 위한 발언과 더불어 개인의 역량에 의해 포용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라고 판단된다.

일부 사람들은 세상이 나아졌고, 더는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현재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이

33) 상계서, p.210-212.

34) 기민도, 김규현, (2023), 「홍준표 “이슬람 포비아 만드는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 추방돼야”」, 한겨레.

35) 백경열, (2023), 「홍준표 “대구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 경향신문. ; 홍준표 페이스북 재인용.

상 그들은 약자에 위치하지 않음을 뜻한다고 말한다. 권력자는 위와 같이 타인을 배척하는 혐오 발언을 아직도 부끄럼 없이 공공연하게 내뱉을 수 있다. 이는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기에 취할 수 있는 태도다. 반면에 비도덕적이지 않음에도 개인의 지향성을 바탕으로 의견이나 취향³⁶⁾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전히 성소수자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homas>는 재학 중이던 대학교 내에 있는 달리기 트랙에 도로 마킹처럼 표시하였다. 도로 마킹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운전자와 비운전자 모두 볼 수 있는 안내의 기능을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나 존재한다.



[그림 12] 김지윤, <Thomas>, 수성 스프레이, 2017

36) 소아성애, 스토킹 등 범죄는 취향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3 Désolé

〈Désolé〉(그림 13)는 연구자가 평생을 같이 살아온 친할머니에게 외출 전 후 인사할 때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다. 모든 컷은 방문이 열리며 시작되고 “나 갈게.”, “나 왔어.” 등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방문을 닫으며 끝난다. 러닝타임 동안 한 컷당 평균 10초 정도 되는 영상이 무수히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는 특별한 내용 없이 비슷한 조모의 일상이 되풀이될 뿐이다. 한 컷에 소비되는 10초라는 시간은 그마저도 사실상 귀가 어두운 조모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서 늘어난다.

어릴 적부터 연구자는 가부장적인 조모에게 “여자가”라는 단어와 함께 집 안 내에서 사사로운 차별로 연구자 본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느끼는 이유인 여성성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연구자와 노쇠한 조모의 관계에서 더 이상 약자는 손녀가 아니었다. 하루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 안에서 보내는 조모의 거동이 불편하여 자기 신체에 관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렵다. 그런 조모와 달리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는 연구자는 상반되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 물리적으로 마주치는 시간이 적고, 대화는 주제나 사상, 성향의 차이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서히 거리감이 생겼다. 조모는 연구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연구자에게 소외된 인물이었다.

현대 노인 소외 현상의 원인으로 핵가족의 추세로 인해 부양의식과 노인의 권위가 약화되고, 급격한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세대 차이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 본인만 해도 조모와의 관계에 있어 위의 모든 이유가 해당이 된다고 느끼지만, 이는 고의든 아니든 노인의 소외현상은 정당화할 수 없다. 노인의 권위가 약화 되는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기능이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신체 기능의 저하는 단순히 운동성에 관한 육체적인 노화뿐만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함께 줄어들며 학습 능력 역시 저하되어 사고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서 말했듯 현재 자기 모습만으로 상황과 태도를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림 13] 김지윤, 〈Désolé〉 중 부분

4.4 Sortie

〈Sortie〉 시리즈는 〈Désolé〉와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상반되는 작업이다. 손녀이자 작가인 연구자가 촬영하고, 장소는 주로 방안으로 넓혀봤자 집안으로 제한되며, 형식적인 인사뿐인 〈Désolé〉와 달리 대상이었던 할머니가 직접 촬영을 하고, 장소는 시장이나 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장소이지만 혼자 가기에는 버거웠던 곳들이며, 할머니의 생각이나 기억들이 대화 내용에 주를 이룬다.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상이었던 조모의 위치에 변화가 일어난다. 수동적이던 할머니는 촬영을 나갈 준비를 하며 스스로 캠코더를 챙기고, 카메라 쥐는 방향을 조정하는 등 서툴지만 창작 과정에 참여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곱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 등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속담은 이 외에도 나라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족이란 보통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집단이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다. 그런 가족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세상에는 악인이 존재하며 그 역시 누군가의 가족일 것이고 그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가족 역시 인간관계의 하나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까운 만큼 편하고, 오랫동안 알아 왔기에 서로를 잘 안다는 불확실한 근거에 의지하여 이해가 부족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은 때로 너무 가깝고 그 존재를 당연시하여 되레 소중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 연구자 역시 조모와의 관계가 그랬다. 노쇠한 조모가 식사 시간 등 주로 같이 있을 때 하는 대화는 대부분 몸의 어딘가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마주하는 시간마다 뉘두리를 듣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워져서 식사는 얹힐 거 같고, 조모의 육체적 고통이 정서적으로 같이 물드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다 〈Sortie〉를 제작하기 위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대화의 시작은 평소와 다른 엇비슷한 하소연이었지만 조모는 이내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다. 굳이 비교하자면 재밌거나 긍정적인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조모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집 안에서 항상 다른 가족을 돌보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닌 한 사람의 생각과 살아온 만큼 쌓인 경험담이었다. 조모는 6·25 때 월남하여, 형제들에게 없는 살림 다 퍼주던 진외증조모와 자라고 조부 없이 부친을 키우며 현재의 집에 정착하였다. 조모의 몸이 안 좋은 이유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누적된 고생으로 신체가 닳았기 때문이었다.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모의 태도가 악의가 없음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디 그레이엄을 포함한 3명의 심리학자가 쓴 책 『여자는 인질이다』에서 여성이 남성과 생활하는 이유를 스톡홀름 증후군에 비교한다.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은행 강도 사건에서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 혹은 동조하는 현상을 말한다.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생존할 방법으로 인식하며, 가해자의 행동과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남성의 폭력³⁷⁾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한다고 믿는 것과 피해자가 본인을 탓하는 것은 인지 왜곡에 의한 것이다. 오귀인(Misattribution)은 원인을 잘못 짚어 생각한다는 뜻이다. 피해자는 본인이 흥분 상태이고 가해자에게 과잉된 관심을 보이는 게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오귀인은 피해자가 탈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생기는 인지 왜곡이다. 오귀인 없이는 스톡홀름 증후군이 생기지도 계속되지도 않을 것이다.³⁸⁾

연구자는 이것이 가부장제에 여성들이 동화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은, 특히 윗세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부당함과 설움을 느끼더라도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직장이 있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 같은 ‘집안일’을 여성이 하는 것은 당연하며, 남성은 가장 이기에 기를 세워줘야 하고 권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지 왜곡이 되어 있어 후대에 대물림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연구자의 조모는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노화라는 다른 요소가 중첩되어 집안에서 권위가 줄어

37) 인용된 부분에서 남성의 폭력은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을 말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가부장제로 인한 가정 내에 가사노동 전가, 독박 육아, 권위적인 태도로 인한 정서적인 폭력까지 포함한다.

38) 디 그레이엄, 에드나 롤링스, 로버타 릭스비, (2019), 유혜담 역, 『여자는 인질이다』, 열다북스, p.108

들고, 소외현상이 일어난다.

연구자가 가까운 관계이기에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노인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위하여 경로당에 방문했다. 경로당의 있던 노인들 역시 연구자의 조모와 비슷한 평범한 노인으로 본인의 늙은 모습을 추하다고 여겼다.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살며 자식들과 빈번하게 왕래하지는 않지만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경로당에 왔지만 하릴없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볼까 꺼려져 영상 출현을 거부했다. 작품 제작이 최종적인 목적이었기에 연구자는 일단 노인들이 화투 치는 테이블을 촬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은 카메라에 돈통이 걸릴지 염려하여 정리를 해주고, 믹스커피를 내주는 등 연구자에게 환대의 태도를 보였다.

노인들은 현재의 모습을 과거의 자신이나 지나가는 청년과 비교하곤 한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많은 노인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향수에 잠긴다. 아직 어려 남은 세월을 겪어보지 못한 연구자가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말일 수 있겠으나, 그 세월을 겪었기에 가질 수 있는 지혜와 태도가 있으리라 본다. 이는 당사자성의 극복을 위해 내세웠던 근거와 반대 방향으로도 적용한다.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노인 소외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젊은 세대에 속한 입장에서 노인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온전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기분도 느낀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겠지만 노인 역시 어리고 미숙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살다 보면 막연하게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을 수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방어 기제 일수도, 당시 상황이 버거워 일시적으로 날카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관심과 소통이라는 작은 통로를 만드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쉽게 호의를 베풀고 다가갈 수 있다.



[그림 14.] 김지윤, 〈Sortie-hôpital〉 중 부분



[그림 15] 김지윤, 〈Centre pour personnes âgées〉 중 부분

V.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타인을 향하는 연구자의 창작활동에 있어 윤리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반성과 발전을 위한 모색이었다. 그를 위하여 왜 대상이 당사자성이 없는 타인인지, 그러한 대상을 작업으로 다루기 위해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되짚어 보았다.

연구자가 타인에 관한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타고난 기질과 직접 겪은 경험으로 비롯되었다. 해당 주제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작업으로 볼 수 있는, 조모가 등장하는 시리즈는 그 대상이 가족이기에 타인이라고 하기에는 어중간한 위치이다. 또한 연구자의 현실 속에서 풀지 못한 골이 존재하여 작업 내용이 풍부하고 명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 완결을 맺지 않은 작품인 만큼 보완의 기회가 있으며, 추후 진행하게 될 다른 주제와 대상들에 관해서도 환대의 태도를 갖고 관계를 형성해 가며 진정성 있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언급된 작가 모두 타인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방관하지 않으며 작품으로서 풀어내 각자의 자리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설명된 모든 일은 절대 남의 사건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의 이야기라도 우리는 그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감정에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은 언젠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완벽하게 타인을 이해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당사자가 아니기에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2차 가해 등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말과 행동에 있어 경계해야겠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에게는 ‘거울 뉴런’이 존재한다. 특정 행동을 계획하고 처리할 때 전운동피질에 있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데 거울 뉴런은 다른 누군가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⁹⁾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웃거나 울고 있는 얼굴을 보면 같이 기분

이 좋아지거나 슬퍼지기도 하며, 타인의 일을 나의 경험과 연관 지어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게 태어났다.

타인에게 마음을 쓰는 이유는 생물학적인 본능일 수도, 개인의 타고난 기질일 수도, 본인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취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소하다고 느껴져도 각자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실천한다면 그 행동들이 쌓이고 모여 변화를 만들어 낸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가 하는 미술이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창작 과정에 힘을 쓸 것이다.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여 작품을 만들고 미술과 전시가 단순히 보고 나서 끝이 아닌 머리 속에 타인을 향한 키워드를 새겨넣을 수 있는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9) 크리스티안 케이서스, (2011), 고은미, 김잔디 역,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가』, 바다출판사, p.16.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기민도, 김규현, (2023), 「홍준표 “이슬람 포비아 만드는 특정 사이버 기독교 세력 추방돼야”」, 한겨레.

노원희, (2013), 『노원희』, 핵사곤, p.10.

디 그레이엄, 에드나 롤링스, 로버타 릭스비, (2019), 『여자는 인질이다』, 유혜담 역, 열다북스, p.108.

마사 C. 누스바움, (2015),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박동수, (2012), 「점자, 만지는 글 아름다운 기억」, issuu.

박래균, (2008),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수연 외 3인, (2021), 「그 공장 3라인에서 죽은 사람들... 13년 만에 온 편지」, Ohmynews.

박정연, (2023),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 프레시안.

백경열, (2023), 「홍준표 “대구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 경향신문. ; 홍준표 페이스북 재인용.

수전 손택, (2004),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우경희 외 2인, (2014), 「총체적 '인재'의 결정판 세월호...."곳곳에 원인 있었다"」, 머니투데이.

윤자은, (2017), 「[갈 길 먼 인천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청회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표출」, 매일노동뉴스.

이숙이, (2015), 「강기훈과 그들의 24년」, 시사HN.

장기현, (2018), 「태안 화력발전소 '2인1조' 요구 목살, 누구 책임?」, UPI뉴스.

존 롤스, (2003),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크리스티안 케이서스, (2011), 고은미, 김잔디 역,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가』, 바다출판사, p.16.

JR 홈페이지 : <https://www.jr-art.net/project-list/woman-are-heroes>

2. 국외문헌

Colin Clews, (2012), 「1985. Lesbians and Gays Support the Miners. Part Two.」, Gay in the 80s: A Pivotal Era in LGBT History?

Peter Wilsher, (1985), 『Strike : Thatcher, Scargill, and the miners』, Coronet Books.

ABSTRACT

Art Directed at Others

Kim, Jee-Yun

Master of Fine Art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art as a medium for understanding individual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It begins with a focus on the goal of comprehending others through artistic creation, based on the author's experiences and disposition towards social vulnerability.

The primary reason the researcher is interested in social disadvantage is that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nherent temperament, making it challenging to establish persuasive arguments. Consequently, the paper examines the conditions and reasons for a society where basic rights are guaranteed, using the philosopher John Rawls' assertions as a means to address the situation when an individual becomes socially disadvantaged. While Rawls may not advocate a theory of virtue, his methods of advocating for a society with a fair concept of justice can be advantageous from an individualistic perspective, transcending inherent

notions of good and evil.

Rawls' theory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Veil of Ignorance" through a thought experiment, suggesting tha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others deemed unrelated to oneself is crucial for creating a fair society. Despite many people considering issues unrelated to their own lives and showing indifference to others and social vulnerabilities, this perspective may not always hold true. Unforeseen events can lead anyone to become socially disadvantaged, and Rawls emphasizes the need for contingency plans due to the unfairness of reality, even if not necessarily resulting from accidents or disasters.

The paper discusses artists, including Bae Yeong-hwan, No Won-hee, and JR, who, using different mediums, share a common commitment to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concer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practicing artists. While they have all engaged in works addressing various social issues and vulnerabilities, the emphasis is placed on examining works related to situations where the artist is not the direct subject, highlighting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of others.

In the creative process, the paper advocates for utilizing the societal nature and diverse utility of art, even in seemingly trivial aspects, to achieve changes in perception and foster interest. It reflects on the reasons for targeting individuals without personal involvement and discusses the attitude needed to handle such subjects. The paper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vercoming personal biases, supporting others through collective efforts, and taking action in understanding and assisting those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KEYWORD】 Parties Involved, Social Vulnerable Group,

Theory of Justice, Art of social participation, Solidarity.